



글로벌 도약

SK이노베이션은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과 SK인천석유화학을 기업 분리하여 5개 계열사 체제로 재편했습니다. 또한 3개의 CIC를 두어 사업특성에 맞는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사업별 독자경영 체계 아래 본원적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일에는 상호 협력하는 등 ‘독립적이면서도 상호의존적인 (Independent but Interdependent)’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3 Company in Company, 5 Subsidia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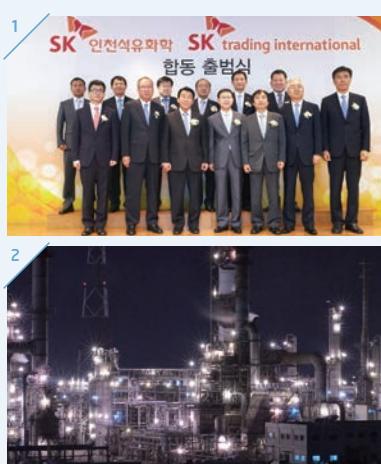
더 큰 미래를 열어갈 전략적 분사

2013년 7월, SK이노베이션의 새로운 성장 축인 SK인천석유화학과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석유사업을 담당하는 SK에너지, 화학사업을 담당하는 SK종합화학, 윤활유사업을 담당하는 SK루브리컨츠 등 기존 3개 자회사 체제에서 5개 자회사 체제로 탈바꿈하였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외자 유치 등을 통해 내년 3분기까지 콘덴세이트(초경질원유)를 기반으로 파라 자일렌(PX) 등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증설(총 투자비 1.6조원)을 완료하고, 중국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은 SK에너지와 연계한 트레이딩 사업을 기반으로 하되 거래선과 지역, 제품군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글로벌 트레이딩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분사는 2020년 매출액 290조원, 영업이익 14조원의 비전을 달성하려는 ‘양적 성장과 글로벌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각각의 자회사는 회사마다 경쟁력을 키워 ‘따로’를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같이’를 추구해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1 SK인천석유화학 ·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합동 출범식
2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전경



290
조원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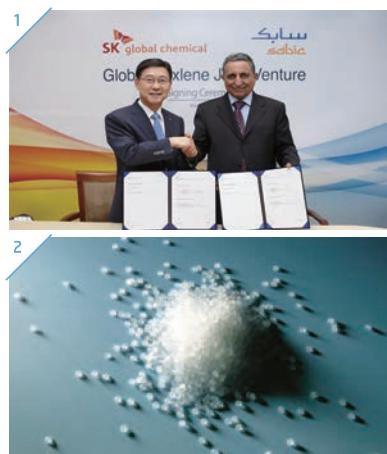
14
조원
영업이익

신성장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개편

SK이노베이션은 2020년 글로벌화 달성을 가속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먼저, 정보전자소재와 전지 배터리, 분리막 등 전략사업을 전담할 CIC(Company In Company: 회사 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기존 배터리·정보전자 사업본부를 신성장 사업 개발을 전담하는 NBD(신사업·New Biz. Development)로 통합, 새로운 CIC로 신설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내 CIC는 기존 GT(Global Technology, 옛 기술원), E&P(Exploration & Production, 석유개발) 등 2곳에서 3곳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성장 사업 개발을 전담할 CIC 출범은 기술기반의 신성장 모멘텀을 확보해 비즈니스 성과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기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까지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규모를 2만대까지 늘리고, 중국 내 전기차 배터리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전자소재 사업에서는 리튬이온배터리 분리막(LIBS) 설비 8·9호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2015년 연성동박적총판(FCCL) 증설 완료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CIC 설립 변화도



1 SK종합화학과 사빅의 협작법인 설립계약 체결
2 넥슬렌

기술력에 기반한 핵심기술 사업화

넥슬렌 독자기술의 글로벌 사업화

SK종합화학은 2014년 5월 사우디 국영 석유화학기업 사빅(SABIC)과 함께 고성능 폴리에틸렌의 SK브랜드인 넥슬렌(Nexlene)의 생산 및 글로벌 판매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넥슬렌은 SK종합화학이 촉매·공정·제품 등 전 과정을 독자 기술로 개발한 고성능 폴리에틸렌의 브랜드명으로 고부가 필름, 자동차 및 신발 내장재, 케이블 피복 등에 사용됩니다. 고성능 폴리에틸렌은 기존 범용 폴리에틸렌보다 충격에 강하고 투명성과 위생성, 가공성 등이 강화된 제품으로 현재 일부 화학사들이 독점 생산하고 있습니다.

'넥슬렌'을 일괄 생산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SK종합화학과 사빅의 이번 협작을 통해 사빅은 고성능 폴리에틸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고 SK종합화학은 시장 확대와 원가경쟁력 강화가 가능해져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두 회사는 2014년 연내 싱가폴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SK종합화학이 올 초 울산에 준공한 넥슬렌 공장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 2공장을 건설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3년 보유 광구 현황

2013년 12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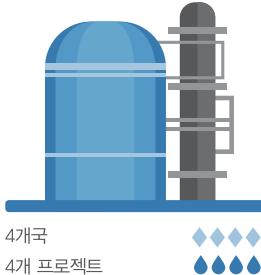
● 생산 광구



● 탐사 광구



● LNG



GreenPol 기술 상업화를 통한 그린 마켓(Green Market) 선점

SK이노베이션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친환경 플라스틱 재료를 만드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해 왔습니다. 일명 그린풀(GreenPol)로 불리는 이산화탄소 플라스틱입니다.

우리회사는 그린풀의 기반 기술 개발에 이미 성공하고 시제품 생산용 소형 설비(파일럿 플랜트)도 완공하여, 현재 양산 기술을 완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신기술은 기존 원료의 40%를 이산화탄소로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소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일반 플라스틱보다 투명성과 산소·수분 차단성 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 개발을 마치고 사업화를 검토하는 단계이며, 제품이 상용화되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회수·저장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친환경 신소재로 생산, 석유화학제품인 나프타 사용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권까지 확보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역발상으로 시작한 사업전략으로 그린마켓 시장을 선점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석유개발 전 단계의 노하우와 역량 확대

2014년 미국 오클라호마 소재 그랜트/가필드 카운티 생산광구와 텍사스 소재 크레이恩 카운티 생산광구의 지분을 인수하였습니다. 두 광구를 인수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일일 원유 생산량은 기존 약 7만 1,000배럴에서 약 7만 4,250배럴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세계 15개국에서 7개 생산광구, 15개 탐사광구 등 총 22개 광구와 4개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최대 민간 석유개발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랜트/가필드 카운티 광구의 운영권을 확보해 석유개발사업의 전문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운영권 확보를 계기로 탐사·개발·생산을 아우르는 석유개발 전 단계에서 사업 역량과 노하우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향후 중국, 호주, 남미 등지의 비전통자원(unconventional resources) 사업에 참여하는 발판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유망 지역을 중심으로 탐사 및 신규광구를 지속 확보하여, E&P 사업 전 단계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Innovation, 글로벌 시장 공략

2020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글로벌 리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R&D 인프라를 구축하고, 충청남도 서산에 대규모 양산공장을 가동하면서 기술개발과 양산체제를 모두 완성하고 리튬이온 전지를 기반으로 한 중대형 배터리를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유의 고에너지밀도와 고출력기술을 바탕으로 성능, 가격, 안전성에서 우수한 제품을 현대/기아자동차그룹, Daimler 자동차 그룹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그 외 여러 자동차 회사들과 공동개발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시장뿐만 아니라 제주도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에 국내 최대규모의 에너지 저장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기술과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기 위해 2014년 1월 베이징전공, 베이징자동차와 손잡고 합작사인 ‘베이징 BESK 테크놀러지’를 설립해 같은 해 4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베이징전공은 중국 1위, 세계 5위의 LCD 패널 생산업체이며, 베이징자동차는 중국 4대 자동차 회사로 지난해 완성차 170만대를 생산한 견고한 회사입니다. SK이노베이션을 포함한 3사의 각 영역별 기술력과 사업 경험 등이 더해진 Beijing BESK Technology는 우선 베이징 현지에 2014년 하반기까지 연간 전기차 1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 팩 제조라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오는 2017년까지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시장 개척을 발판 삼아 중국 내 주도적인 전기차 배터리 업체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분리막에서 배터리까지 전기차 밸류체인의 핵심 소재 및 부품에서 최고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 고부가 화학시장 공략

SK종합화학이 중국 최대 국영 석유기업인 시노펙(Sinopec)과 손잡고 추진해온 ‘우한 프로젝트’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SK의 중국내 최대 투자로, 우한시에 나프타 분해시설(NCC)을 설립해 연간 에틸렌 80만톤, 폴리에틸렌(PE) 60만톤, 폴리프로필렌(PP) 40만톤 등 총 250만톤 규모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우리의 브랜드가 달린 석유화학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유통할 수 있는 석유화학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현재, 나프타 분해시설(NCC)이 본격 상업생산 체재에 돌입했으며, 폴리에틸렌 10만톤, 폴리프로필렌 30만톤이 SK종합화학의 이름으로 중국 시장에 본격 판매되고 있습니다.

합작법인 ‘시노펙-SK 페트로케미칼[Sinopec-SK(Wuhan) Petrochemical]’의 2014년 예상 매출액은 약 3조원입니다.

SK종합화학은 글로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의 에너지화학시장의 성공적인 진입에 이어, 글로벌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성장을 위해 끊임 없는 기술 개발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고급기유 시장에서의 글로벌 비즈니스 강화

SK루브리컨츠는 스페인 최대 정유사 렘솔과 합작해 건설 중인 윤활기유 공장을 2014년 하반기 본격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스페인 공장을 거점으로 유럽의 환경기준 강화에 발맞춘 고급제품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 그룹Ⅲ 윤활기유 선두 업체로서 입지를 다진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활유 완제품의 경우, 2013년 12월 글로벌 메이저 자동차 그룹인 GM에 자동변속기유에 이어 엔진유 공급자로 최종 선정되며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및 파akistan 등 중점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신흥시장으로 떠오르는 인도 시장에선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성장 가속화를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



1 베이징전공과 전기차배터리 합작법인 계약체결식